

개혁 교육 운동 속의 바우하우스

The Bauhaus and the Education Reform Movement

김진경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Kim, Jin-Kyong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

• Key words: Bauhaus, Design Education, Education Reform

1. 서론

19세기의 디자인 교육은 아카데미식 도제교육과 순수예술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습득한 직업인으로서의 디자이너는 길러내지 못했다. 순수미술의 원리를 이용해 대량생산 상품의 미적 표준을 제고하려는 디자인 학교들은 있었지만 순수미술의 토대와 전문 기술간의 괴리는 극복하지 못했다. 세기 말, 유럽의 디자인 학교들에서는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도제교육을 벗어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시대를 위한 시각언어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렸다. 바우하우스는 이러한 이상의 정점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이너를 위한 전문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0년 남짓 되는 짧은 역사에 그친 학교였지만 바우하우스는 디자인 교육의 가장 실험적이면서도 가장 견고한 모델로 자리잡으며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바우하우스로부터 계승된 것은 무엇이고 간과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논의는, 디자인역사를 통해 숭배되고 모방되었으며 재평가되고 비판받는 등 솔하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온 바우하우스에 대해 또 한 줄의 주석을 달고자 하는 시도이다. 가장 널리 파급되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왜곡되기도 했던 바우하우스를 다시 살펴보는 일은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파편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디자인 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2. 바우하우스 문제의식의 출발점

바우하우스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포부를 안고 출발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1923년에 발표된 그로피우스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다소 격양된 어조로 시작된다.

“자아를 세계에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렸던 이중적 세계에 대한 낡은 상(象)은 급속히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그 대신, 모든 반대되는 세력이 절대적인 균형 상태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통일에 대한 관념이 떠오르고 있다. (...) 이제 어떤 것도 더 이상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형태를 하나의 관심의 구체화로, 모든 작업들을 우리 자신 내면의 표명으로 인식한다. 내적 필요에 의한 산물로서의 작업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¹⁾

1) Walter Gropius, "The Theory and Organism of The Bauhaus", translated of "Idee and Aufbau des Staatlichen Bauhauses Weimar", Herbert Bayer, Walter Gropius, Ise Gropius (Ed.), Bauhaus 1919-1928,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75, p. 20.

윌리엄 모리스를 연상하게 하는 이 글에서, 그로피우스는 '분열-고립'과 '통일'을 대립시키며 바우하우스가 (자칭해서) 짙어질 이중적인 과제를 던지지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모리스가 꿈꾼 것처럼 길드로 대표되는 중세 장인들의 작업정신으로 되돌아가는 동시에 대량생산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시대의 시각언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글의 서두에서 '고립'과 '통일'로 선언된,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의 두 축은 아카데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교육 실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며,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의 위상은 바로 이 양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립된다. 그로피우스는 '어제의 정신을 대표하는 도구가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카데미가 예술가를 산업사회와 수공예 세계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예술가를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²⁾

3. 바우하우스의 교과과정과 교육 목표

그렇다면 바우하우스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그들의 교과과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의 강령에는 바우하우스의 교육이 '창조적 작업의 모든 실제적, 이론적 분야를 포함'한다고 쓰여져 있다. 학생들은 (1) 공예, (2) 소묘 및 회화, (3) 과학과 이론에서 훈련받아야 했다. 조각, 금속공예, 가구 제조, 장식, 판화, 직조 등의 공예 실습은 바우하우스에서 모든 교육의 기초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누구나 공예를 배워야 했다. 또한, 과학과 이론의 교육에서는 미술사, 재료학, 해부학, 색채이론, 계약 교섭, 예술 및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³⁾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 교수법의 최고 정점은 창조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건축가, 화가, 조각가들을 유능한 공예가이자 창조적인 예술가로 승화시켜 중세적 의미의 '길드', 즉 작업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다. 집합적인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바우하우스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교과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그로피우스는, 궁극적으로 바우하우스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상징할 수 있는 형태를 발명-창조해낼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때문에, 학교의 '교육 분야는 모든 측면으로 확

2) Walter Gropius(1975), p. 21.

3) H. M. Wingler(2001), p. 45

장되고 인접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 바우하우스와 개혁교육학

바우하우스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의 실험적이고 개혁적인 교육의 움직임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원리한 기초한 조직이 외부 세계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질문을 철저히, 그리고 끊임없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쉽게 고립되고 말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 기반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개혁적인 교육운동(4)의 핵심-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반발과 ‘아동으로부터의 교육’은 바우하우스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맥이 닿는다.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반발이란 바우하우스의 경우, 두말할 것 없이 기존의 아카데미식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며, 또한 개혁교육학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아동으로부터의 교육’은 바우하우스에서 ‘지식의 부과가 아닌 내재된 능력의 개발’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부과가 아닌 내재된 능력의 개발’이란 사실 루소로부터 페스탈로찌, 프리벨에게로 이어지는 아동 교육사상의 전통에서 뽑아낸 고갱이같은 것이었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이상과 조직”에서 아동 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순수한unspoiled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몬테소리 학교와 같은, 실제적인 작업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은 전인적인 개발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⁵⁾

바우하우스의 기초과정은 이러한 개혁교육학의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된다. 1923년 바우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기초과정을 담당했던 요하네스 이텐에 따르면, 기초과정은 예술적 소양과 자질이 모두 다른 학생들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단계’였으며, 또한 기존의 아카데미교육을 통해 단순히 모방하는 데에만 익숙했던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독창성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특히, 기초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학생들의 ‘창조력을 자유롭게 한다liberate’, 즉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모든 쓸데없는 관습으로부터 탈피’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4) 영국의 세실 레디Cecil Reddie가 설립한 ‘애보츠호움’(1889)이나, 스웨덴의 엘렌 케이Ellen Key가 출간한 <어린이의 세기>(1900), 독일의 베르톨트 오토Berthold Otto가 저술한 <미래학교의 교과>(1901), 그리고 이에 기반해 이를 실행에 옮긴 ‘가정교사학교’(1906), 게오르크 케르웬스타이너Georg Kerschensteiner의 <독일 소년의 국민교육>(1901) 등이 이 시기에 나타난 교육 개혁의 움직임들이었다. 몬테소리가 로마대학 정신병원에서 정신박약아를 돌보면서 어린이의 놀이 욕구를 발견하고 ‘어린이의 집’을 설립해, 놀이 욕구에 따른 교육방법을 적용한 것도 이 무렵(1907)이었고, 미국에서 존 듀이John Dewey가 시카고 대학에 실험학교를 설립(1894)하고 <학교와 사회>(1899)를 저술하는 등의 활동의 펼친 것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기섭, “개혁교육학의 사상적 기초와 루소”, <교육철학>, Vol.20, 교육철학회, 1998, pp. 168-169 참고.

5) Walter Gropius(1975), p. 29.

여기에서, ‘몬테소리 학교와 같은, 실제적인 작업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란 프리벨의 맥을 이어 노작교육을 강조한 유치원을 지칭한다.

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을 버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지식을 획득할 것을 요구받았다.

5. 결 론

개혁교육학의 흐름 속에 디자인 교육을 위치지우면서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디자인 교육을 꿈꾸었던 바우하우스의 이상은 모홀리-나기를 통해 뉴 바우하우스에까지 계승된다. 그로피우스가 ‘예술가의 고립’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꿈꾸었다면, 모홀리-나기는 좀더 근본적으로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균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성과 이성 이 조화를 이룬, ‘전인whole man’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며, ‘집합적인 교육’의 토대를 위해 제공되었던 바우하우스의 교과 과정은 모홀리-나기를 통해 ‘전인’의 양성을 위한 더욱 포괄적인 교육과정 - 교육 철학, 경제학, 외국어까지 포함하는 - 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그로피우스와 모홀리-나기의 시도에서 공통되게 읽을 수 있는 분명한 것 중 하나는 ‘산업사회의 새로운 차원’을 열기 위해 교육 개혁의 움직임을 포함해 당대 타분야의 여러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참고해왔다는 것이다. 모홀리-나기는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일을 다루는 단순히 기술적인 스킬, 생물학적, 사회학적 충동을 억누르는 엄격함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현 시대의 디자인 교육에는 요소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시각언어로 바꾸려는 실험이 있는가, 실험적 교육, 대안적 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때다. 기초과정-전공과정으로 구분되었던 바우하우스 교과과정의 틀은 계승하되 그 정신은 계승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반문해 볼 때다.

참고문헌

- Alain Findeli, "21세기를 향한 디자인교육의 재고찰: 이론, 방법론, 윤리", 박해천, 박노영, 윤원화 역음, <디자인 앤솔러지>, 시공아트, 2004.
- Walter Gropius, "The Theory and Organism of The Bauhaus", translated of "Idee and Aufbau des Staatlichen Bauhauses Weimar", Herbert Bayer, Walter Gropius, Ise Gropius (Ed.), *Bauhaus 1919-1928*,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75.
- Laszlo Moholy-Nagy, *Vision in Motion*, Paul Theobald and Company, 1969.
- Hans M. Wingelr, <바우하우스>, 미진사, 2001.
- 김진경, “어린이의 발견과 바우하우스 기초 디자인 교육”, 미발표 논문.